

Amelogenesis Imperfecta Pt.의 Full Mouth Rehabilitation

윤승환*, 오남식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보철과

Amelogenesis imperfecta는 치아의 맨 바깥층을 이루고 있는 가장 단단한 법랑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trauma, deciduous tooth의 periapical abscess가 permanent tooth에 영향을 주거나, 임신시 산모가 중병을 앓았다던가, 생후 일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심하게 앓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dental caries의 예방과 불완전한 enamel에 대한 치료가 되는데 전악 수복을 통하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며, 해부학적, 기능적 조화와 교합의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

Amelogenesis imperfecta Pt.에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occlusal wear에 의한 vertical dimension의 loss가 생기기 쉬운데 심미성, 기능과 편안감을 위해서 전방 유도 조화를 이루게 하고 적절한 교합평면 선택과 과두유도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전방유도와 조화를 이룬 하악구치를 수복한 후 상악구치 교합의 수복을 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교합수복을 이룰 수 있다. 상악 구치 교합의 수복시에 기능 운동로 술식(Functionally generated path technique)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합 고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diagnostic wax-up과 occlusal splint를 제작하고 환자에게 장착 후 adaptation양상을 살펴보아서 고경의 회복양을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심미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Pankey-Mann-Schuyler philosophy는 하악이 중심위에 있을 때 최대수의 치아가 정적인 조화를 이루고 전방 운동시 모든 구치가 이개되며, 측방 운동시 balancing inclines은 이개되고 working inclines은 group function을 형성하는 교합원리를 주장하였는데 요즘에는 working side의 group function 개념은 바뀌고 있다. 이 Pankey-Mann-Schuyler philosophy를 잘 이해하고 장점을 취하여 교합회복을 해 주어야 하겠다.

본원에 내원한 Amelogenesis imperfecta Pt.를 full mouth rehabilitation을 통해 치료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